

직업계고 졸업자의 노동시장 이행 경로 유형

류 지 은¹⁾ · 서 예 린²⁾

요 약

이 연구에서는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졸업자의 노동시장 이행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교육고용패널 2차 웨이브(KEEP II)의 직업계고 2학년 코호트 자료를 기반으로 직업계고 졸업자의 노동시장 이행 경로를 유형화했다. 시퀀스 분석과 최적 일치법을 활용해 직업계고 졸업 후 42개월간의 노동시장 이행 경로 유형을 도출했으며, 유형별 차이 검정과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노동시장 이행 경로 유형별 특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로는 첫째, 직업계고 졸업자의 노동시장 이행 경로는 시퀀스 간 유사성에 따라 서로 다른 하위 집단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마이스터고 졸업자와 특성화고 졸업자의 노동시장 이행 경로는 유형의 특성에 있어 차이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업계고 졸업자의 노동시장 이행 경로 유형은 인구통계학적 특성, 가정 특성, 학교생활 특성 및 진로 특성에 의해 유의미하게 설명될 수 있으며, 학교 유형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세부 요인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 연구에서는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과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I. 서 론

중등단계 직업교육은 우수한 기술 인력 양성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주요 동력으로 기능해 왔다(조석훈, 2008). 이에 더해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중등단계 직업교육은 청년층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한 주요 대안으로서의 역할도 수행 중이다(박미경 외, 2016). 정부는 2008년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을 기점으로, 과잉학력 현상으로 인한 청년층의 일자리 mismatch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온 바 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실제로 가시적인 성과를 얻었는데, 직업계고 졸업자 중 취업자 수가 점차 증가했을 뿐 아니라 2014년에는 2001년 이후 약 10년 만에 진학자 수를 추월하기도 했다(한국교육개발원, 2014).

그러나 최근 직업계고 졸업자의 노동시장 이행 신호등에는 빨간불이 켜져 있다. 2021년 기준 직업계고 졸업자 78,994명 중 취업자는 22,583명으로 전체의 30% 수준에 불과하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1). 반면 진학자는 35,529명으로 전체 졸업자의 45%에 달한다. 직업계고

1)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

2) 서울대학교 박사수료

졸업자들이 취업보다 진학을 선택하는 데에는 여전히 만연해 있는 학력주의나 고졸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최근의 코로나19에 따른 전반적인 고용침체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다양한 이유들의 기저에는 고졸 취업자의 열악한 일자리 여건이 깔려 있다는 점이다. 낮은 수준의 임금과 열악한 근로환경 등 고졸 일자리의 낮은 질은 직업계고 졸업자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김성남·하재영, 2018). 이로 인해 직업계고 졸업자들은 노동시장 진입 자체를 주저하게 될 뿐 아니라, 노동시장 안착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실제로 고졸 취업자들은 다른 학력에 비해 높은 이직률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며(윤형한·신동준, 2012), 초기 직장적응 과정에서도 부적응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최동선 외, 2013).

청년 실업 문제가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직업계고 졸업자들의 노동시장 이행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년기의 노동시장 이행은 사회 전반의 노동시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기 때문이다(김성남·최수정, 2012). 특히 노동시장 진입 후 초기 경력은 이후의 생애 전반에 걸친 경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직업계고 졸업자의 초기 노동시장 이행에 관심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직업계고 졸업자의 초기 노동시장 이행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과 정착의 특정 시점을 횡단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아닌, 종단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노동시장 이행은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특정 시점의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에 정착하기까지의 ‘과정’을 포괄하기 때문이다(남재욱, 2021).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고용패널(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2차 웨이브(이하 KEEPⅡ)의 직업계고 2학년 코호트 자료를 활용해 직업계고 졸업자의 노동시장 이행 경로를 유형화함으로써 이들의 노동시장 이행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최근 직업계고 졸업자들의 노동시장 이행 과정과 그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며, 이들의 노동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 배경

1. 직업계고 졸업자의 노동시장 이행 관련 현황

2021년 기준 전체 직업계고 졸업자는 총 75,398명으로, 취업률은 56.1%, 진학률은 44.3%로 나타나고 있다(<표 1> 참조). 학교 유형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특성화고 졸업자는 총 69,663명으로, 취업률은 53.4%, 진학률은 47.4%로 나타났다. 다만 특성화고 졸업자 중 진학자는 33,047명으로 취업자보다 진학자가 더 많다. 마이스터고 졸업자의 경우, 특성화고보다 취업률(75.0%)은 높고 진학률(6.6%)은 낮는데, 이는 취업에 초점을 둔 마이스터고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표 1〉 2021년 직업계고 졸업자의 졸업 후 상황

(단위: 명, %)

구분	졸업자	취업자 현황		진학자 현황		입대자	제외 인정자	미취업자	
		취업자	취업률	진학자	진학률				
특성화고	남	39,651	10,418	52.1	17,831	45.0	1,295	514	9,593
	여	30,012	8,026	55.3	15,216	50.7	-	271	6,499
	소계	69,663	18,444	53.4	33,047	47.4	1,295	785	16,092
마이스터고	남	4,941	3,006	73.4	331	6.7	492	24	1,088
	여	794	623	83.6	46	5.8	-	3	122
	소계	5,735	3,629	75.0	377	6.6	492	27	1,210
전체	남	44,592	13,424	55.7	18,162	40.7	1,787	538	10,681
	여	30,806	8,649	56.6	15,262	49.5	-	274	6,621
	합계	75,398	22,073	56.1	33,424	44.3	1,787	812	17,302

주: 1) 조사기준일: 2021년 4월 1일

2) 취업률(%) = {취업자 / (졸업자 - (진학자+입대자+제외인정자))} × 100

3) 진학률(%) = (진학자 / 졸업자) × 100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1).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 세부 분석 자료. p.11 재구성

2021년 직업계고 졸업자의 사업장 종사자 규모별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직업계고 졸업자들은 30~300명 미만 규모의 사업장에 가장 많이 취업했으며, 5~30명 미만 규모, 1,000명 이상 규모 순으로 많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이러한 취업 현황은 학교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특성화고 졸업자는 주로 영세한 규모의 사업장에 취업하는 경향을 보이는 데 비해, 마이스터고 졸업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 2021년 직업계고 졸업자의 사업장 종사자 규모별 취업 현황

(단위: 명)

구분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전체
5명미만	1,196	55	1,251
5~30명 미만	6,609	554	7,163
30~300명 미만	6,524	1,520	8,044
300~1000명 미만	1,356	314	1,670
1000명 이상	2,021	1,108	3,129
기타	670	55	725
합계	18,376	3,606	21,982

주: 기타-건강보험(직장)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중 취업처 상세 정보가 없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취업자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1).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 세부 분석 자료. p.26 재구성

한편, 노동시장 정착 측면에서 2020년 직업계고 졸업자의 유지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3> 참조). 2020년 4월 당시 전체 직업계고 졸업자 중 보험가입자는 24,218명이었으며, 같은 해 10월에 시행된 1차 유지취업조사에서 유지취업자는 18,745명, 유지취업률은 77.4%로 나타났다. 이후 2021년 4월에 시행된 2차 유지취업조사에서는 유지취업자가 15,773명, 유지취업률은 65.1%로 1차 조사에 비해 다소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성별 측면에서 1차 조사 당시 유지취업률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았으며, 2차 조사 당시 유지취업률 역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특성화고 졸업자의 1차 유지취업조사에서의 유지취업률은 76.6%, 2차 유지취업조사에서의 유지취업률은 64.4%였다. 마이스터고 졸업자의 경우 특성화고 졸업자보다 높은 유지취업률을 보였는데, 1차 조사에서의 유지취업률은 82.1%, 2차 조사에서의 유지취업률은 69.3%로 나타났다.

〈표 3〉 2020년 직업계고 졸업자의 유지취업 현황

구분	졸업자	본조사 (2020.4.1.)	1차 유지취업조사 (2020.10.1.)			2차 유지취업조사 (2021.4.1.)			
		보험가입자 (a)	보험가입자	유지취업자 (b)	유지취업률 (b/a*100)	보험가입자	유지취업자 (c)	유지취업률 (c/a*100)	
특성 화고	남	45,257	11,485	11,120	8,447	73.5	10,012	6,645	57.9
	여	34,246	9,232	10,065	7,424	80.4	10,170	6,703	72.6
	소계	79,503	20,717	21,185	15,871	76.6	20,182	13,348	64.4
마이 스터 고	남	4,854	2,895	2,655	2,325	80.3	2,349	1,907	65.9
	여	812	606	619	549	90.6	609	518	85.5
	소계	5,666	3,501	3,274	2,874	82.1	2,958	2,425	69.3
전체	남	50,111	14,380	13,775	10,772	74.9	12,361	8,552	59.5
	여	35,058	9,838	10,684	7,973	81.0	10,779	7,221	73.4
	합계	85,169	24,218	24,459	18,745	77.4	23,140	15,773	65.1

주: 1) 보험가입자: 건강보험(직장)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2) 유지취업자: 본조사 기준 건강보험(직장) 또는 고용보험 가입 취업자 중 1차 및 2차 조사기준 가입 확인된 취업자

3) 유지취업률(%) = (1차 및 2차 유지취업자 / 본 조사 건강보험(직장) 또는 고용보험 가입 취업자) × 100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1).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 세부 분석 자료. p.32 재구성

2. 직업계고 졸업자의 노동시장 이행 관련 선행연구

지금까지 직업계고 졸업자를 비롯한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최적일치법(optimal matching)과 시퀀스 분석(event sequence analysis)을 활용해 노동시장 이행 경로의 유형화를 시도해 왔다. 먼저 김성남·최수정(2012)은 KEEP 자료에 동 분석법을 활용하여 일반고 및 특성화고 졸업자의 교육 및 노동시장 이행 경로를 살펴본 바 있다. 분석 결과, 특성화고 졸업자의 이행 경로는 대학재학형, 고졸 후 지속적 미상형, 고졸 후 취업형, 전문대학 및 미상 혼합형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이와 동일한 분석법을 적용한 김성남·하재영(2018)에서는 고졸 취업자의 이행 경로를 유형화함에 있어 주목해야 할 특성으로 성별을 강조하고, 남성과 여성 집단을 구분하여 별도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남성의 경우 미상형, 정규직형, 불안정 정규직형, 실업 및 비경제활동형, 자영업형 등 5개 유형으로 구분된 한편, 여성의 경우 미상형, 정규직 후 경력단절형, 정규직형, 실업 및 비경제활동형, 후진학형 등 5개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단, 이러한 결과는 일반고와 특성화고 졸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고졸 취업자 전체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김진모 외(2018)에서도 같은 방법을 통해 직업계고 졸업자의 졸업 이후 경력을 유형화하였는데, 경력유형은 대기업 정규직형, 중소기업 정규직형, 불안정 고용형, 4년제 대학 진학형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시퀀스 분석 외에 다른 분석 방법을 시도한 연구도 있었는데, 박미경 외(2016)는 중등직업교육 정책 대상자인 직업계고 졸업자의 졸업 후 9년간의 중장기 노동시장 이행유형을 도출하기 위해 집단중심추세분석(group based trajectory analysis)을 활용하였다. 이들은 유형을 구분함에 있어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활용하였으며, 포아송 분포(zero-inflated Poisson distribution)에 따라 소득구간을 7개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서도 성별에 따라 이행유형을 살펴보았으며, 남성은 대졸 실업집단, 전문대졸 취업집단, 고졸 취업집단으로, 여성은 전문대졸 실업집단, 대졸 취업집단, 고졸 취업집단 등 각각 3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박미화·홍백의(2014)의 연구에서도 집단중심추세분석을 활용해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을 유형화한 바 있다. 남재욱(2021)은 소득을 종속변수로 한 준모수적 집단중심모형(semi-parametric group-based approach)을 통해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궤적의 유형을 구분하기도 했는데, 선형 궤적을 보이는 네 가지의 서로 다른 노동시장 이행 유형이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법들은 기존 배열분석법에서 고려하지 못한 임금 수준과 같은 질적 성과를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박미경 외, 2016), 이를 통해 구분된 각 유형에서 종속변수의 변화 궤적 외에 각 유형의 노동시장 이행 상태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특성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한편, 선행연구에 따르면 직업계고 졸업자의 노동시장 이행에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가정 특성, 학교생활 특성, 진로 특성 등이 영향을 줄 수 있다. 먼저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관련해서 성별에 따라 특성화고 졸업자의 노동시장 이행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성남·하재영, 2018; 박미경 외, 2016; 최동선 외, 2010). 일례로 최동선 외(2010)에서 여성은 남성

에 비해 첫 직장으로서의 이행 시기가 빠르지만 조기 이탈하는 경향이 크고, 종사하는 직종이 사무직 및 서비스직 등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농업계열에 비해 공업계열을 전공했을 경우 고졸 취업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나거나(박미경 외, 2016), 상업계열이 타계열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 등(최동선·이중범, 2013) 졸업자의 전공에 따라서도 노동시장 이행에 차이가 존재한다. 이와 더불어 특성화고 졸업자의 취업에 관한 영향요인을 구명한 노경란·허선주(2012)에 따르면 비수도권 대비 수도권에 거주할수록 취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즉, 고등학교 생활이 주로 이루어진 지역에 따라서도 노동시장 이행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가정 특성과 관련해 대표적으로 부모의 학력수준은 교육지원활동과 연관되어 다음 세대의 성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병영 외, 2008). 실제로 직업계고 졸업자의 노동시장 이행 유형에 있어서도 부모의 학력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재욱, 2021; 박미경 외, 2016). 한편, 개인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은 이들의 취업장벽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김은영, 2001; 황매향 외, 2005). 직업계고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대학교에 진학한 후 노동시장에 진입할 경향이 높고(박미경 외, 2016), 직업계고 졸업 후 4년제 대학에 진학한 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월평균 가구소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진모 외, 2018).

학교생활 특성과 관련해서는 이들이 졸업한 특성화고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좋은 일자리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고(최동선·이중범, 2013), 고교 재학 중 제공된 취업지원에 대해 만족할수록 취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노경란·허선주, 2012). 또한 취업 프로그램 참여횟수가 많을수록 고졸 취업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고, 현장실습에 참여했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고졸 취업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미경 외, 2016). 즉,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 경험이 직업계고 학생의 졸업 후 노동시장 이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고등학교 재학 중 자격증 취득을 많이 할수록 좋은 일자리로 진입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등 노동시장 이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노경란·허선주, 2012; 최동선·이중범, 2013).

마지막으로 진로 특성 측면에서는 고등학교 재학 중 진로와 관련한 경험이 많은 학생일수록 취업할 가능성이 크지만, 진로상담 경험은 취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강순희, 2013). 또한 고등학교 재학 중 취업목표를 설정한 경우 노동시장 정착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강순희, 2013). 노경란·허선주(2012) 역시 특성화고 졸업 청년의 취업성공요인으로 취업목표 관련 변인을 투입했는데, 취업목표 설정 시기가 이룰수록 취업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구직에 대한 효능감과 진로미결정이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장벽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이지혜·정철영, 2010).

Ⅲ. 연구 방법

1. 분석자료

이 연구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KEEPⅡ 자료 중 직업계고등학교 2학년 코호트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KEEPⅡ 자료는 2016년 기준 특성화고 2학년 학생 2,595명과 마이스터고 2학년 학생 1,020명 등 총 3,615명을 대상으로, 매년 같은 표본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구축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KEEPⅡ의 1차(2016년) 학생 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가구 조사 자료를 연결하고, 5차(2021년)까지의 학생 조사 자료를 순서대로 병합한 후 연구 목적에 적합한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분석자료를 구성했다.

분석자료의 추출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는 직업계고 졸업자의 노동시장 이행 경로를 유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므로, 고등학교 졸업 후의 노동시장 이행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3차 연도부터 5차 연도까지의 연도별 조사 자료를 토대로 응답자별 졸업 후 노동시장 이행 상태를 확인했다. 이후 노동시장 이행 상태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546명의 결측 표본을 제외했으며, 최종적으로 특성화고 졸업자 2,154명, 마이스터고 졸업자 915명 등 총 3,069명의 표본을 분석에 활용했다.

2. 활용 변수

직업계고 졸업자의 노동시장 이행 경로를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활용한 변수는 다음과 같다(<표 4> 참조). 이 연구의 종속변수라고 할 수 있는 직업계고 졸업자의 노동시장 이행 상태는 3차 연도부터 5차 연도까지의 대학 입학 여부 및 학교 유형, 대학 입학 및 졸업 시기, 일자리별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기, 군 입대 및 전역 시기 정보에 대한 응답 결과를 기반으로 코딩했다. 유형별 특성 분석에는 가정 특성, 학교생활 특성, 진로 특성 등의 설명변수를 활용했는데, 가정 특성으로는 1차 연도 가구 조사 자료 중 남성 보호자 학력, 여성 보호자 학력, 자녀에 대한 희망 학력, 가구 월 평균 소득 변수가 활용되었다. 학교생활 특성과 진로 특성은 응답 표본의 고등학교 3학년 시점 자료인 2차 연도 조사 자료 내의 변수를 활용했다. 학교생활 특성은 고등학교 생활 만족도, 전공 동아리 경험 여부, 기능반 경험 여부, 취업 지도 경험 여부, 취업/자격증 관련 방과후 학교 및 사교육 경험 여부, 현장체험 경험 여부, 재학 중 근로 경험 여부, 자격증 개수 등의 변수를 활용했고, 진로 특성의 경우 진로역량 관련 문항 9개 문항과 희망 학력, 미래 직업 결정 여부 등의 변수를 활용했다.

〈표 4〉 활용 변수

구분		변수 코드	측정	
노동시장 이행 상태		-	3차~5차 연도 대학 입학 여부/학교 유형/대학 입학·졸업 시기, 일자리별 근무 시작·종료 시기, 군 입대·전역 시기	
인구 통계학적 특성	성별	GENDER	남성=1, 여성=0	
	전공	Y16S01004c	인문·예술=1, 경영·행정=2, 생물·환경=3, 정보통신=4, 공학·제조·건설=5, 농림·어업=6, 보건·복지=7, 서비스=8	
	고등학교 소재지	LOCATION	수도권=1, 비수도권=0	
가정 특성	남성/여성 보호자 학력	W16H04003 W16H05003	고졸 이하=1, 전문대졸=2, 대졸 이상=3	
	자녀에 대한 희망 학력	W16H02026	고졸=1, 전문대졸=2, 대졸 이상=3	
	가구 월 평균 소득	W16H06001	연속형	
학교생활 특성	고등학교 생활 만족도	Y17SA01010	전혀 그렇지 않다=1~매우 그렇다=5	
	전공 동아리 경험 여부	Y17SA01065	있음=1, 없음=0	
	기능반 경험 여부	Y17SA01066	있음=1, 없음=0	
	취업 지도 경험 여부	취업상담	Y17SA01092	있음=1, 없음=0
		채용기업정보제공	Y17SA01093	있음=1, 없음=0
		구직활동지도	Y17SA01094	있음=1, 없음=0
		취업박람회/채용설명회	Y17SA01095	있음=1, 없음=0
		취업캠프	Y17SA01096	있음=1, 없음=0
		졸업생멘토링	Y17SA01097	있음=1, 없음=0
	취업처연계	Y17SA01098	있음=1, 없음=0	
	현장체험 경험 여부	Y17SA03001	있음=1, 없음=0	
	재학 중 근로 경험 여부	Y17SA04001	있음=1, 없음=0	
	자격증 개수	Y17SF01002	연속형	
진로 특성	진로 역량	대학/전공 정보탐색	Y17SA01111	전혀 그렇지 않다=1~매우 그렇다=5
		희망직업 정보탐색	Y17SA01112	전혀 그렇지 않다=1~매우 그렇다=5
		정보판별	Y17SA01113	전혀 그렇지 않다=1~매우 그렇다=5
		직업 관련 학력/자격	Y17SA01114	전혀 그렇지 않다=1~매우 그렇다=5
		장기적인 진로계획	Y17SA01115	전혀 그렇지 않다=1~매우 그렇다=5
		진로계획	Y17SA01116	전혀 그렇지 않다=1~매우 그렇다=5
		진로준비	Y17SA01117	전혀 그렇지 않다=1~매우 그렇다=5
		진로선택기준	Y17SA01118	전혀 그렇지 않다=1~매우 그렇다=5
		어려움 극복	Y17SA01119	전혀 그렇지 않다=1~매우 그렇다=5
	희망 학력	Y17SN01001	고졸=1, 전문대졸=2, 대졸 이상=3	
	미래 직업 결정 여부	Y17SN01002	있음=1, 없음=0	

3.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는 직업계고 졸업자의 노동시장 이행 경로를 유형화하기 위해 먼저 졸업 직후 시점인 2018년 3월부터 2021년 8월까지 42개월간의 노동시장 이행 상태를 월별로 코딩했다. 노동시장 이행 상태는 크게 고용과 미고용 상태로 구분했으며, 고용은 상용직 임금근로자,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학업 병행 상용직 임금근로자, 학업 병행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학업 병행 비임금근로자로 세분화해 코딩했다.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은 미고용 상태의 경우, 단순 미취업과 대학 진학, 병역 등을 구분해 살펴본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4년제 대학 재학, 전문대학 재학, 병역, 미취업으로 세분화해 코딩했다(<표 5> 참조)³⁾.

<표 5> 노동시장 이행 상태 코딩

구분	코드		내용
고용	FE	상용직 임금근로자	상용직으로 고용된 상태
	TE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임시·일용직으로 고용된 상태
	NW	비임금근로자	고용주/특수형태근로종사자/무급가족종사자로 일하는 상태
	FWL	학업 병행 상용직 임금근로자	상용직으로 고용된 동시에 전문대학/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상태
	TWL	학업 병행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임시·일용직으로 고용된 동시에 전문대학/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상태
	NWL	학업 병행 비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로 일하는 동시에 전문대학/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상태
미고용	UN	4년제 대학 재학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상태
	CO	전문대학 재학	2~3년제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상태
	MS	병역	병역 이행 상태
	UE	미취업	재학 및 병역 외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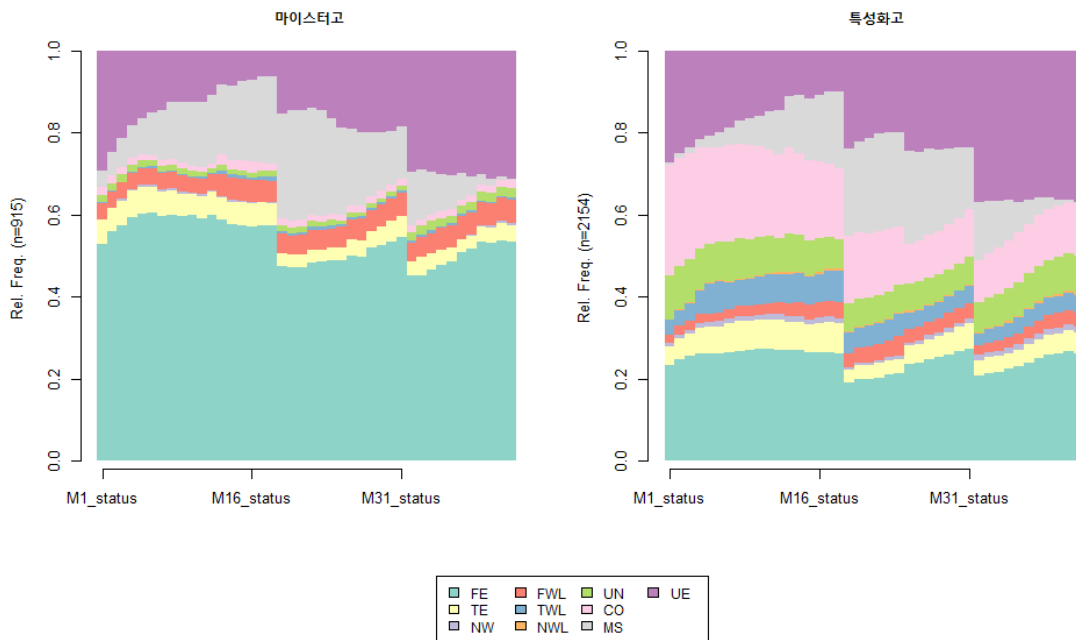
노동시장 이행 상태를 코딩한 후에는 시퀀스 분석(sequence analysis)과 최적 일치법(optimal matching)을 활용해 직업계고 졸업자의 노동시장 이행 경로를 유형화했다. 시퀀스 분석은 일정한 기간의 연속적인 상태 변화를 살펴보는 데 유용한 분석 방법이며(권혁진·유호선, 2011), 최적 일치법은 특정 시퀀스 간의 유사성 분석에 널리 활용되는 방법이다(김성남·최수정, 2012). 이 연구에서는 도출된 노동시장 이행 시퀀스의 거리값을 기반으로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해 노동시장 이행 경로를 유형화하고, 카이스퀘어 검정과 분산분석,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유형별 특성을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에는 R 4.2.1과 STATA 소프트웨어가 활용되었다.

3) 고용 상태에 있는 동시에 병역 상태인 병역특례는 고용 상태로 코딩함.

IV. 연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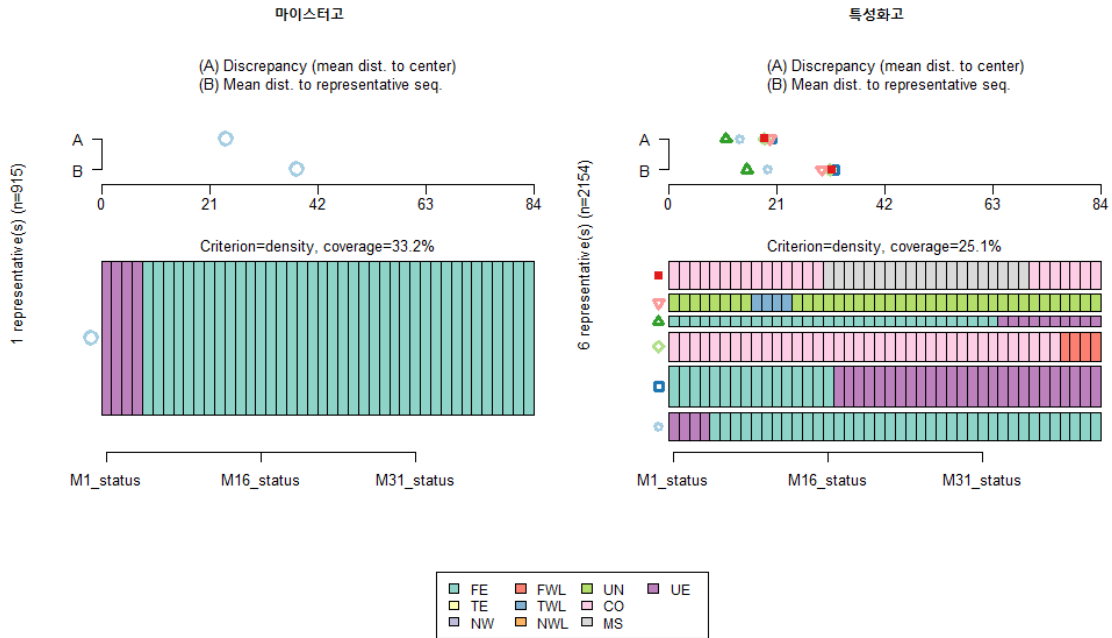
1. 직업계고 졸업자의 노동시장 이행 경로

직업계고 졸업자의 노동시장 이행 경로 유형화에 앞서, 42개월간의 전반적인 노동시장 이행 상태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1] 참조). 마이스터고 졸업자(n=915)의 경우 상용직 임금근로자(FE) 상태를 유지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특성화고 졸업자(n=2,154)는 상대적으로 상용직 임금근로자(FE) 상태의 분포는 작고 4년제 대학 재학(UN), 전문대학 재학(CO), 미취업(UE)의 분포는 크게 나타났다.



[그림 1] 직업계고 졸업자의 노동시장 이행 상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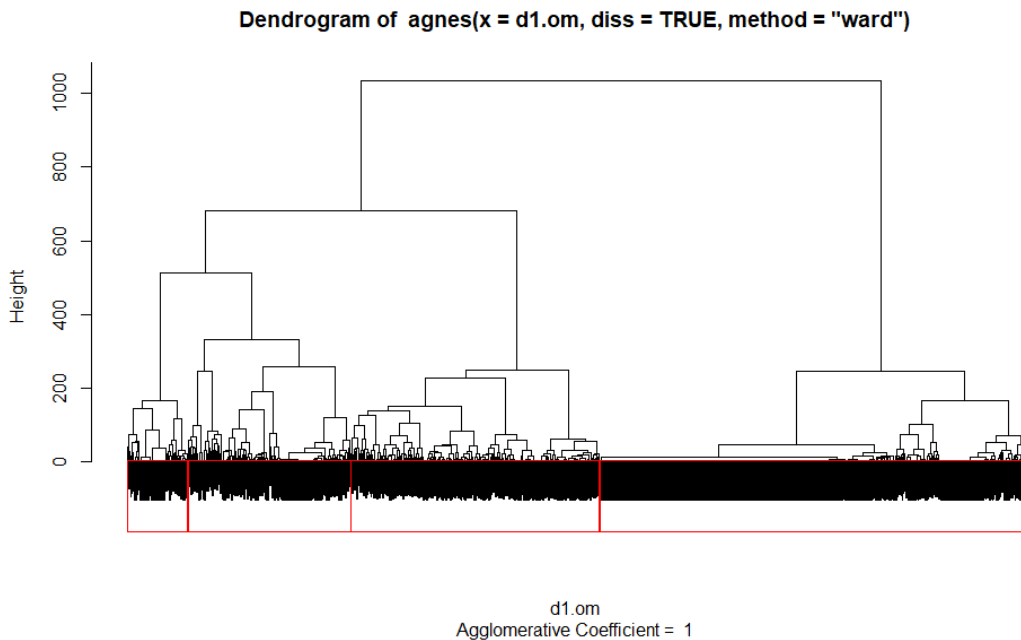
마이스터고 졸업자와 특성화고 졸업자의 노동시장 이행 경로 간 차이는 대표 시퀀스에서도 드러난다([그림 2] 참조). 마이스터고 졸업자의 경우, 4개월간 미취업(UE) 상태 이후 38개월간 상용직 임금근로자(FE) 상태를 유지하는 1개 경로가 대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특성화고 졸업자는 마이스터고 졸업자의 대표 시퀀스와 유사하게 초기 미취업(UE) 이후 상용직 임금근로자(FE) 상태를 유지하는 시퀀스 1개 외에도 상용직 임금근로자(FE) 이후 미취업(UE) 양상을 보이는 시퀀스 2개, 전문대학 재학(CO) 시퀀스 2개, 4년제 대학 재학(UN) 시퀀스 1개 등 6개 대표 시퀀스가 확인된다. 즉, 마이스터고 졸업자들은 대부분 졸업 후 취업상태를 유지하는 이행 경로를 보이는 데 비해, 특성화고 졸업자들의 경우 취업과 진학이 혼재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2] 직업계고 졸업자의 노동시장 이행 경로 대표 시퀀스

2. 직업계고 졸업자의 노동시장 이행 경로 유형

Ward 연결 방법을 사용한 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해 직업계고 졸업자의 노동시장 이행 경로를 유형화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이스터고 졸업자와 특성화고 졸업자의 노동시장 이행 경로 양상은 서로 차이를 보인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마이스터고 졸업자와 특성화고 졸업자를 구분해 각각의 노동시장 이행 경로를 유형화하고자 했다. 먼저 마이스터고 졸업자의 노동시장 이행 경로에 대한 군집분석 결과, 덴드로그램을 고려했을 때 4개 유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그림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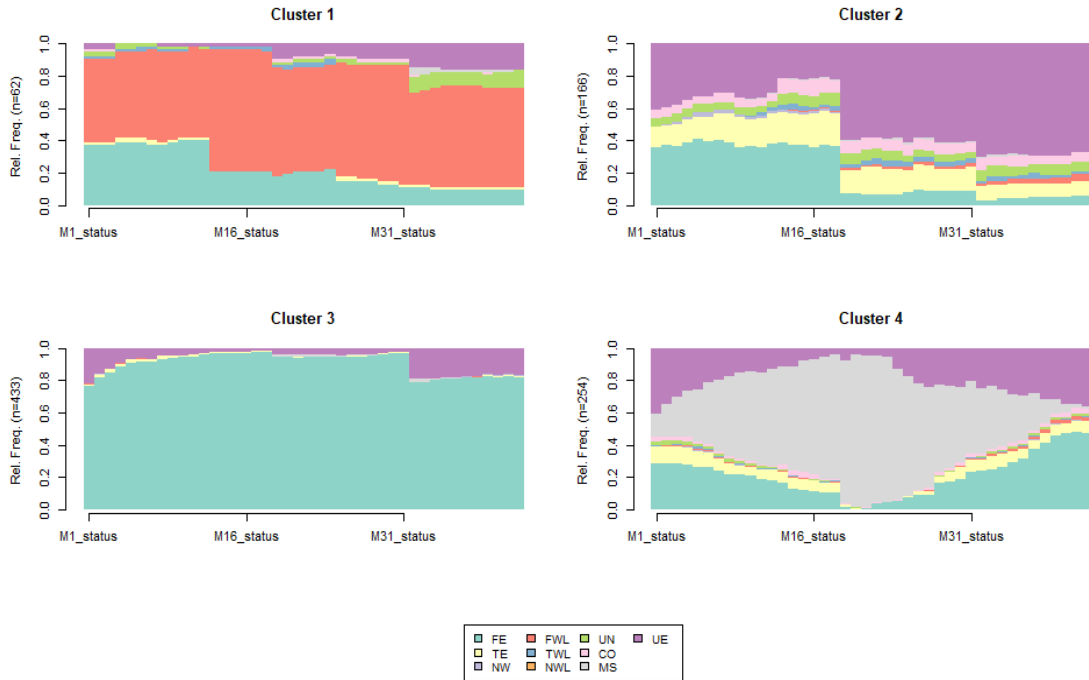
[그림 3] 마이스터고 졸업자의 노동시장 이행 경로 유형화를 위한 덴드로그램

4개 유형의 42개월간 노동시장 이행 상태 변화와 대표 시퀀스를 중심으로 유형별 노동시장 이행 경로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4], [그림 5] 참조). 먼저 유형 1은 전체의 6.8%(n=62)를 차지하는 유형으로, 42개월 동안 학업 병행 상용직 임금근로자(FWL) 상태의 분포가 가장 크다. 유형 1의 2개 대표 시퀀스는 상용직 임금근로자(FE) 이후 학업 병행 상용직 임금근로자(FWL) 상태를 보이는 경로와 학업 병행 상용직 임금근로자(FWL) 상태를 유지하는 경로가 나타나는데, 이는 유형 1이 선취업 후학습을 통해 일과 학업을 병행함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유형 1을 ‘일-학업 병행형’으로 명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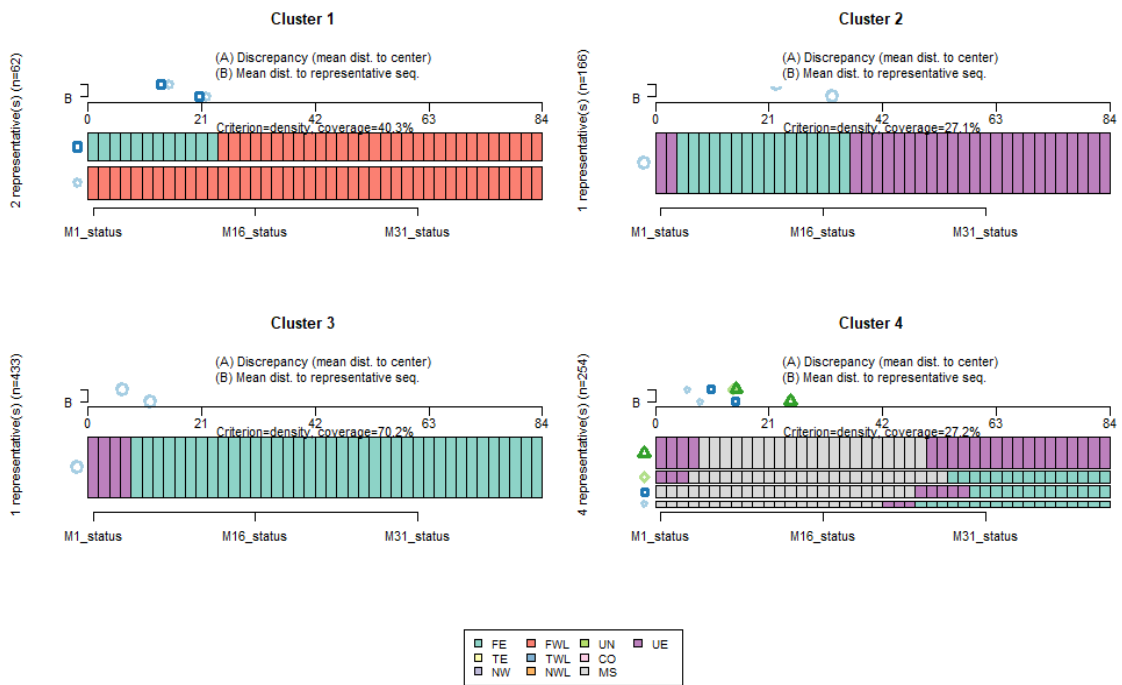
전체의 18.1%(n=166)를 차지하는 유형 2는 다른 유형에 비해 큰 미취업(UE) 분포를 보인다. 유형 2의 대표 시퀀스를 살펴보면, 약 18개월 정도의 상용직 임금근로자(FE) 상태 이후 미취업(UE) 상태를 유지하는 1개 경로가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유형 2는 ‘노동시장 이탈형’으로 명명했다.

유형 3은 전체의 절반 수준인 47.3%(n=433)를 차지하는 유형으로, 42개월 동안 상용직 임금근로자(FE) 상태가 대부분으로 나타나는 유형이다. 유형 3의 대표 시퀀스에서도 4개월간의 미취업(UE) 상태 이후 상용직 임금근로자(FE)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1개 경로가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유형 3을 ‘상용직 유지형’으로 명명했다.

전체의 27.8%(n=254)를 차지하는 유형 4는 다른 유형에 비해 큰 병역(MS) 분포를 보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병역(MS) 분포는 감소하고 상용직 임금근로자(FE) 분포는 증가한다. 유형 4의 대표 시퀀스에서도 졸업 후 병역(MS)을 이행하는 4개 경로가 나타났는데, 병역(MS) 이후 미취업(UE)으로 전환되는 1개 경로와 병역(MS) 이후 상용직 임금근로자(FE)로 전환되는 3개 경로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유형 4는 ‘병역 후 취업형’으로 명명했다.



[그림 4] 마이스터고 졸업자의 노동시장 이행 경로 유형별 이행 상태 변화



[그림 5] 마이스터고 졸업자의 노동시장 이행 경로 유형별 대표 시퀀스

이상의 4개 유형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6> 참조). 먼저 성별은 모든 유형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는데, 상대적으로 일-학업 병행형은 다른 유형보다 여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소재지는 모든 유형에서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많았으며, 일-학업 병행형은 다른 유형보다 수도권 비율이 높았다. 전공의 경우, 모든 유형에서 공학·제조·건설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학업 병행형은 보건·복지 전공이 11.3%로 두 번째로 많았고, 노동시장 이탈형과 상용직 유지형, 병역 후 취업형은 서비스 전공이 각각 16.3%, 9.9%, 7.9%로 두 번째로 많았다. 카이스퀘어 검정 결과 이러한 유형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포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6〉 마이스터고 졸업자의 노동시장 이행 경로 유형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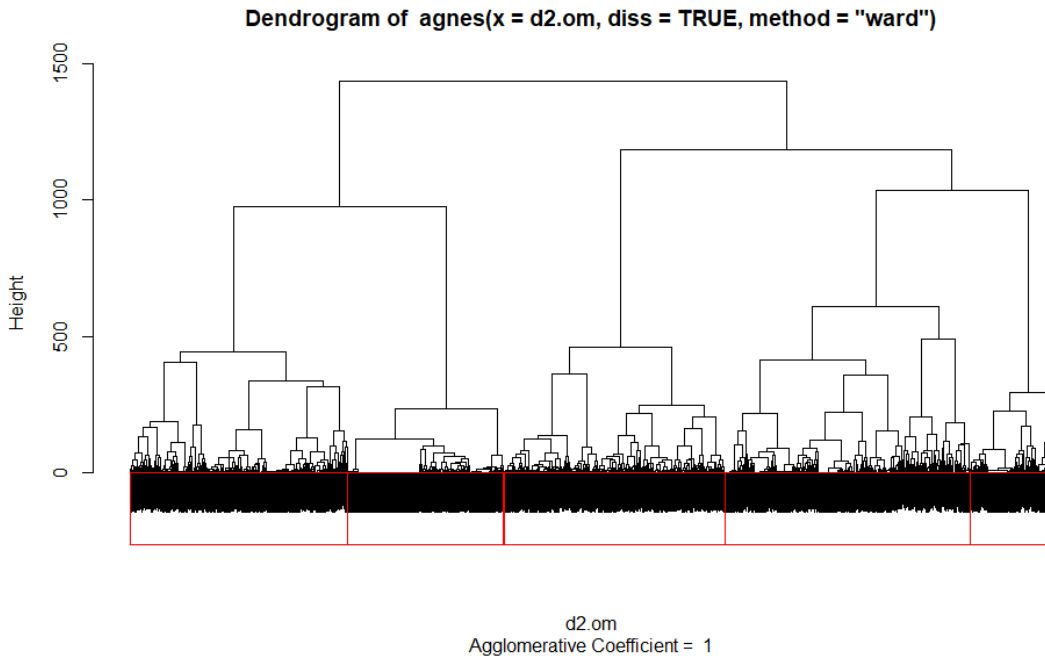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일-학업 병행형		노동시장 이탈형		상용직 유지형		병역 후 취업형		x ²
		n	비율	n	비율	n	비율	n	비율	
성별	남성	37	59.7	137	82.5	338	78.1	254	100.0	86.019***
	여성	25	40.3	29	17.5	95	21.9	0	0.0	
고등학교 소재지	수도권	20	32.3	32	19.3	79	18.2	29	11.4	16.402**
	비수도권	42	67.7	134	80.7	354	81.8	225	88.6	
전공	인문·예술	5	8.1	4	2.4	8	1.8	0	0.0	59.808***
	경영·행정	0	0.0	0	0.0	0	0.0	0	0.0	
	생물·환경	0	0.0	0	0.0	0	0.0	0	0.0	
	정보통신	3	4.8	6	3.6	18	4.2	3	1.2	
	공학·제조·건설	46	74.2	124	74.7	353	81.5	225	88.6	
	농림·어업	0	0.0	2	1.2	2	0.5	2	0.8	
	보건·복지	7	11.3	3	1.8	9	2.1	4	1.6	
	서비스	1	1.6	27	16.3	43	9.9	20	7.9	
전체		62	100.0	166	100.0	433	100.0	254	100.0	-

주) M1=1개월 차(2018년 3월), M42=42개월 차(2021년 8월)

p<.01, *p<.001

특성화고 졸업자의 노동시장 이행 경로 유형화 결과는 다음과 같다. 특성화고 졸업자의 경우, 군집분석 결과 텐드로그램을 고려했을 때 5개 유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그림 6] 참조).



[그림 6] 특성화고 졸업자의 노동시장 이행 경로 유형화를 위한 덴드로그램

5개 유형의 42개월간 노동시장 이행 상태 변화와 대표 시퀀스를 중심으로 유형별 노동시장 이행 경로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7], [그림 8] 참조). 먼저 유형 1은 전체의 23.6%(n=508)를 차지하는 유형으로, 42개월 동안 미취업(UE) 상태의 분포가 가장 크다. 유형 1의 4개 대표 시퀀스 역시 미취업(UE) 후 상용직 임금근로자(FE)로 전환되는 경로, 미취업(UE) 중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TE)를 경험하는 경로, 상용직 임금근로자(FE) 후 미취업(UE)으로 전환되는 경로 등 미취업(UE) 상태가 중점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형 1을 ‘미취업형’으로 명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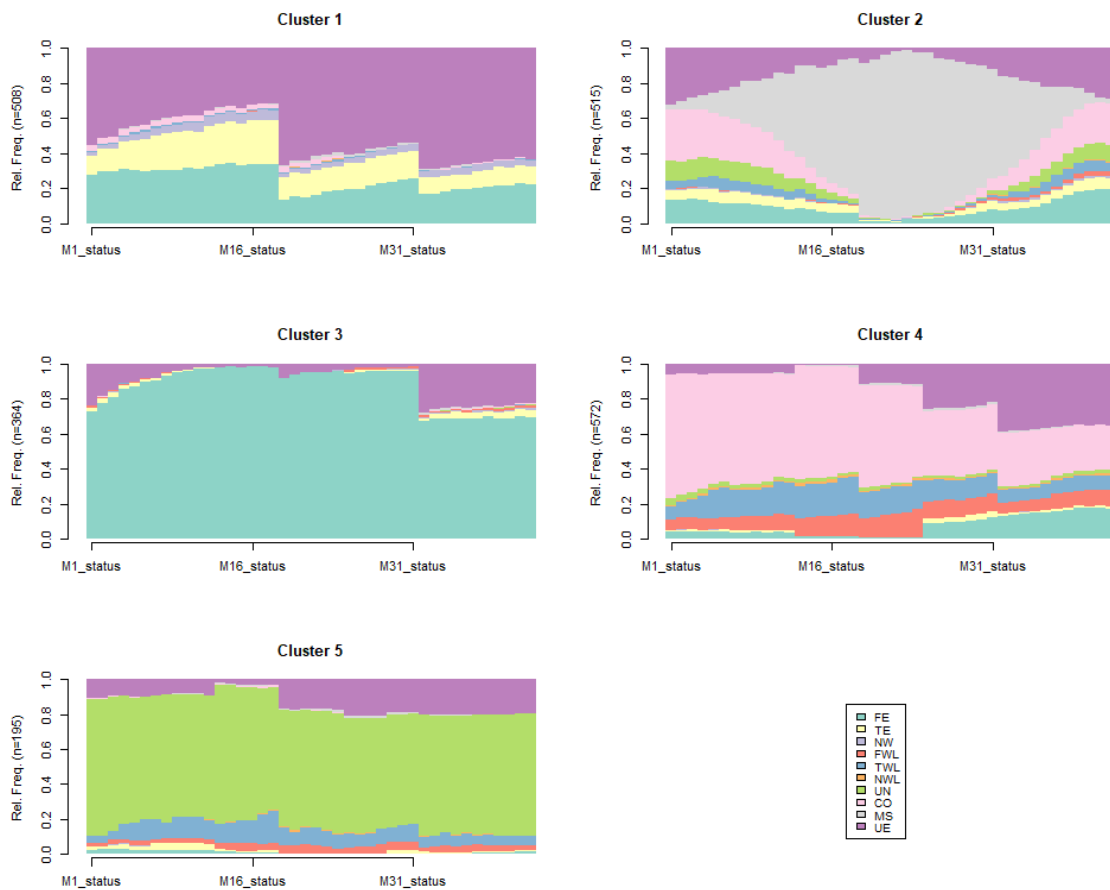
전체의 23.9%(n=515)를 차지하는 유형 2는 다른 유형에 비해 마이스터고 졸업자에서 나타난 ‘병역 후 취업형’과 유사하게 큰 병역(MS) 분포를 보인다. 다만 마이스터고 졸업자의 ‘병역 후 취업형’과 달리, 병역(MS) 외에 미취업(UE)과 전문대학 재학(CO) 분포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유형 2의 경우 6개 대표 시퀀스가 나타나는데, 4년제 대학 재학(UN) 중 병역(MS)을 이행하는 경로, 미취업(UE) 중 병역(MS)을 이행하는 경로, 전문대학 재학(CO) 중 병역(MS)을 이행하는 경로 등이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유형 2는 ‘병역 이행형’으로 명명했다.

유형 3은 전체의 16.9%(n=364)를 차지하는 유형으로, 42개월 동안 상용직 임금근로자(FE) 상태가 대부분으로 나타나는 유형이다. 유형 3의 대표 시퀀스에서도 4개월간의 미취업(UE) 상태 이후 상용직 임금근로자(FE)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1개 경로가 확인되었다. 이는 마이스터고 졸업자에서 나타난 ‘상용직 유지형’과 유사한 특성으로, 유형 3을 ‘상용직 유지형’으로 명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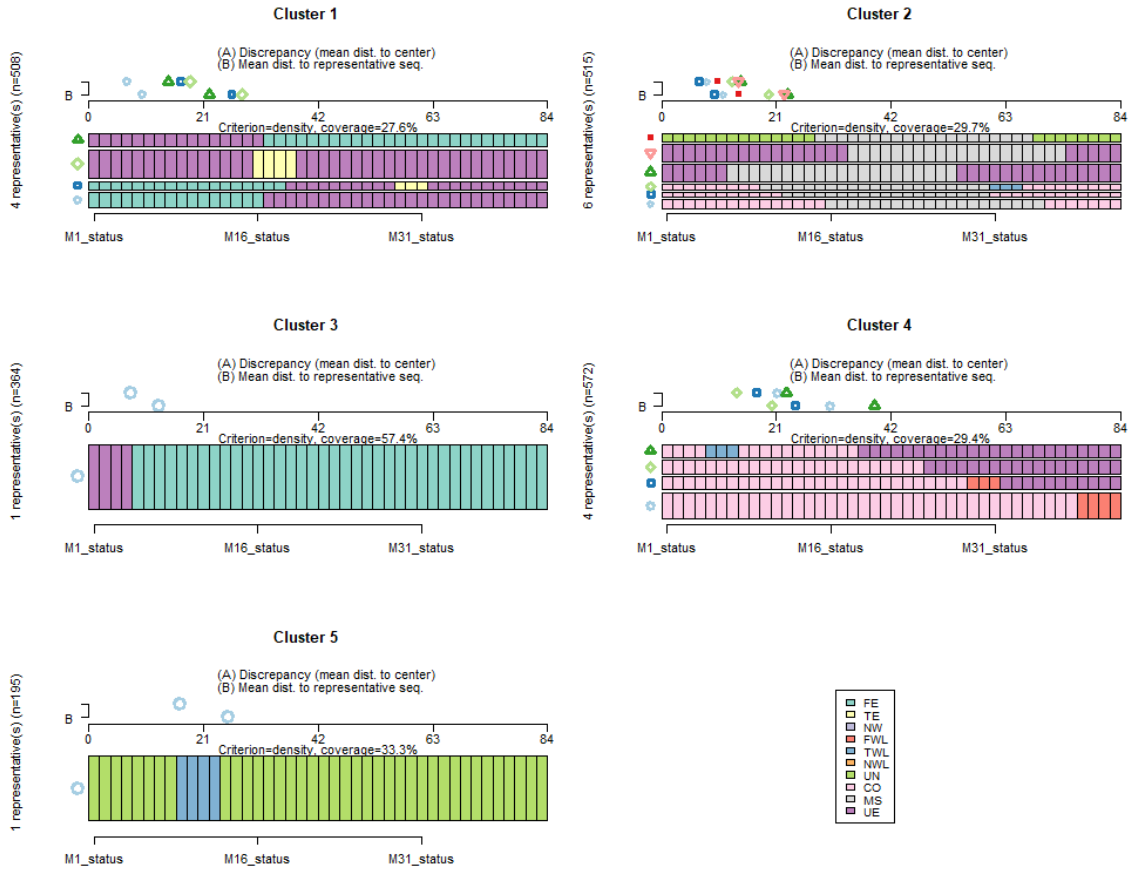
전체의 26.6%(n=572)를 차지하는 유형 4는 다른 유형에 비해 큰 전문대학 재학(CO) 분포를

보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전문대학 재학(CO) 분포는 감소하고 미취업(UE) 분포는 증가한다. 유형 4의 대표 시퀀스에서도 전문대학 재학(CO) 후 미취업(UE)으로 전환되는 3개 경로와 전문대학 재학(CO) 후 학업 병행 상용직 임금근로자(FWL)로 전환되는 1개 경로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유형 4는 ‘전문대학 진학형’으로 명명했다.

유형 5는 전체의 9.1%(n=195)를 차지하는 유형으로, 42개월간 4년제 대학 재학(UN) 상태가 대부분으로 나타나는 유형이다. 유형 5의 대표 시퀀스에서도 42개월간 4년제 대학 재학(UN) 상태를 유지하며 학업 병행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TWL) 상태를 잠시 경험하는 1개 경로가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유형 5를 ‘4년제 대학 진학형’으로 명명했다.



[그림 7] 특성화고 졸업자의 노동시장 이행 경로 유형별 이행 상태 변화



[그림 8] 특성화고 졸업자의 노동시장 이행 경로 유형별 대표 시퀀스

이상의 5개 유형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7> 참조). 먼저 성별은 병역 이행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으며, 병역 이행형은 남성이 99.8%로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용직 유지형과 전문대학 진학형은 미취업형과 4년제 대학 진학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등학교 소재지는 모든 유형에서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많았으며, 병역 이행형은 다른 유형보다 비수도권 비율이 더 높았다. 전공의 경우, 미취업형과 병역 이행형은 공학·제조·건설이 각각 35.2%, 64.7%로 가장 많았고, 상용직 유지형, 전문대학 진학형, 4년제 대학 진학형은 경영·행정이 각각 39.3%, 35.1%, 37.9%로 가장 많았다. 카이스퀘어 검정 결과 이러한 유형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포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7〉 특성화고 졸업자의 노동시장 이행 경로 유형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포

(단위: 명, %)

구분	미취업형		병역 이행형		상용직 유지형		전문대학 진학형		4년제 대학 진학형		χ^2	
	n	비율	n	비율	n	비율	n	비율	n	비율		
성별	남성	235	46.3	514	99.8	138	37.9	211	36.9	88	45.1	559.985***
	여성	273	53.7	1	0.2	226	62.1	361	63.1	107	52.9	
고등학교 소재지	수도권	226	44.5	139	27.0	163	44.8	263	46.0	87	44.6	53.453***
	비수도권	282	55.5	376	73.0	201	55.2	309	54.0	108	55.4	
전공	인문·예술	66	13.0	42	8.2	25	6.9	84	14.7	42	21.5	16.402**
	경영·행정	176	34.6	84	16.3	143	39.3	201	35.1	74	37.9	
	생물·환경	5	1.0	2	0.4	6	1.6	5	0.9	0	0.0	
	정보통신	15	3.0	22	4.3	7	1.9	14	2.4	16	8.2	
	공학·제조·건설	179	35.2	333	64.7	134	36.8	179	31.3	46	23.6	
	농림·어업	7	1.4	7	1.4	3	0.8	7	1.2	3	1.5	
	보건·복지	12	2.4	2	0.4	1	0.3	17	3.0	0	0.0	
	서비스	48	9.4	23	4.5	45	12.4	65	11.4	14	7.2	
전체	508	100.0	515	100.0	364	100.0	572	100.0	195	100.0	-	

주) M1=1개월 차(2018년 3월), M42=42개월 차(2021년 8월)

***p<.001

3. 직업계고 졸업자의 노동시장 이행 경로 유형별 특성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직업계고 졸업자의 노동시장 이행 경로 유형별 특성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할 경우 로짓계수(B)와 승산비(Exp(B)) 값을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각 유형에 속할 확률을 쌍대비교한 값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졸업자가 각 유형에 속할 예측확률을 계산하고, 인구통계학적 특성, 가정 특성, 학교생활 특성, 진로 특성 등이 각 확률에 가지는 평균한계효과를 분석하였다.

마이스터고 졸업자의 노동시장 이행 경로 유형에 대한 평균한계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8〉 참조). 먼저 마이스터고 졸업자를 대상으로 분석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로그 우도(Log Likelihood)의 차이에 대한 χ^2 값은 244.75으로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유사 R^2 (Pseudo R^2)값은 0.148로 분석모형의 설명력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마이스터고 졸업자의 노동시장 이행 경로 유형에 대한 평균한계효과

구분		일-학업 병행형	노동시장 이탈형	상용직 유지형	병역 후 취업형	
인구 통계 학적 특성	성별(ref.여성)	-0.227	-0.594	-1.735	2.556	
	전공 (ref.인문·예술)	경영·행정	-	-	-	-
		생물·환경	-	-	-	-
		정보통신	-0.003	-0.110	0.066	0.047
		공학·제조·건설	-0.034	-0.065	-0.022	0.120
		농림·어업	-0.795	0.243	0.235	0.316
		보건·복지	0.432	-4.385	2.626	1.328
서비스	-0.120	0.072	0.043	0.005		
고등학교 소재지(ref.비수도권)		0.015	-0.059	-0.007	0.050	
가정 특성	남성 보호자 학력 (ref.고졸 이하)	전문대졸	-0.000	-0.023	-0.033	0.056
		대졸 이상	0.022	-0.039	-0.107*	0.123**
	여성 보호자 학력 (ref.고졸 이하)	전문대졸	0.005	-0.019	0.087	-0.073
		대졸 이상	-0.043	0.034	0.155**	-0.146**
	자녀에 대한 희망 학력(ref.고졸)	전문대졸	0.012	-0.058	0.061	-0.015
	대졸 이상	0.013	-0.003	0.065	-0.075	
가구 월 평균 소득		0.000	0.000	-0.000	-0.000	
학교 생활 특성	고등학교 생활 만족도		-0.017	-0.050*	0.051	0.016
	전공 동아리 경험(ref.없음)		0.002	-0.002	0.069	-0.069*
	기능반 경험(ref.없음)		0.007	0.022	-0.079	0.051
	취업지도 경험 (ref.없음)	취업상담	0.026	-0.005	-0.112	0.091
		채용기업정보제공	-0.047	-0.009	0.075	-0.018
		구직활동지도	-0.041	-0.039	0.115	-0.035
		취업박람회/채용설명회	0.036	0.012	-0.040	-0.008
		취업캠프	-0.012	-0.024	0.047	-0.011
		졸업생멘토링	0.014	0.036	-0.024	-0.026
		취업처연계	0.005	0.011	-0.029	0.013
현장체험 경험(ref.없음)		-0.014	-0.011	0.018	0.007	
재학 중 근로 경험(ref.없음)		0.041*	0.064	-0.066	-0.039	
자격증 개수		0.008	-0.010	-0.002	0.004	
진로 특성	진로 역량	대학/전공 정보탐색	0.004	-0.014	-0.005	0.015
		희망직업 정보탐색	-0.008	0.001	0.027	-0.020
		정보판별	0.038*	-0.052*	0.003	0.011
		직업 관련 학력/자격	-0.005	0.009	0.049	-0.052
		장기적인 진로계획	-0.005	-0.003	-0.012	0.021
		진로계획	0.003	-0.031	0.026	0.002
		진로준비	-0.018	0.017	-0.016	0.016
		진로선택기준	-0.007	0.019	-0.030	0.017
	희망 학력 (ref.고졸)	전문대졸	-0.066	0.007	0.063	-0.004
		대졸 이상	0.036	0.009	-0.010	-0.034
미래 직업 결정 여부(ref.없음)		0.016	0.024	0.052	-0.093**	
N		697				
Log Likelihood		-705.833				
Model chi-square		244.75***				
Pseudo R-square		0.148				

*p<.05, **p<.01, ***p<.001

각 유형별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학업 병행형과 노동시장 이탈형에서는 학교생활 특성과 진로 특성 중 일부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일-학업 병행형에서는 재학 중 근로 경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을 때보다 동 유형에 속할 확률이 0.041 높고, 진로 관련 정보판별 역량 수준이 높을수록 동 유형에 속할 확률이 0.038 높았다. 노동시장 이탈형에서는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동 유형에 속할 확률이 0.050 낮고, 진로 관련 정보판별 역량 수준이 높을수록 동 유형에 속할 확률이 0.052 낮았다. 상용직 유지형의 경우, 유일하게 남성 및 여성 보호자의 학력수준이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의 학력이 대졸 이상이면 고졸 이하에 비해 동 유형에 속할 확률이 남성 보호자에서는 0.107 낮았지만, 여성 보호자에서는 0.155 높게 나타났다. 병역 후 취업형에서는 가정과 학교생활, 진로 특성 중 일부 변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앞선 유형과 달리 남성 보호자의 학력이 대졸 이상이면 고졸 이하 대비 동 유형에 속할 확률이 0.123 높고 여성 보호자의 학력이 대졸 이상일 경우 0.146 낮게 나타났다. 고등학교 재학 당시 전공 동아리 경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을 때보다 동 유형에 속할 확률이 0.069 낮았으며, 미래 직업을 결정했을 경우 그렇지 않을 때보다 동 유형에 속할 확률이 0.093 낮았다.

한편, 특성화고 졸업자의 노동시장 이행 경로 유형에 대한 평균한계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9> 참조). 먼저 특성화고 졸업자를 대상으로 분석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로그 우도(Log Likelihood)의 차이에 대한 χ^2 값은 1291.52로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유사 R^2 (Pseudo R^2)값은 0.256로 분석모형의 설명력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유형별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미취업형에서는 남성이 여성 대비 동 유형에 속할 확률이 0.215 낮게 나타났다. 자녀에 대한 희망 학력수준이 전문대졸이거나 대졸 이상일 경우 고졸 이하에 비해 미취업형에 속할 확률이 각각 0.124, 0.136 낮게 나타났다. 고등학교 재학 당시 취업상담 경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을 때보다 미취업형에 속할 확률이 0.085 높게 나타났다. 희망진로로의 준비 방법을 알수록 미취업형에 속할 확률이 0.039 낮아지는 한편, 진로선택에 대한 기준이 있을수록 미취업형에 속할 확률이 0.044 높았다. 자신이 희망했던 학력수준이 전문대졸이거나 대졸 이상일 경우 고졸 이하에 비해 미취업형에 속할 확률이 0.153 낮았으며, 미래 직업을 결정했을 경우 그렇지 않을 때보다 미취업형에 속할 확률이 0.060 높게 나타났다.

병역 이행형에서는 남성이 여성 대비 동 유형에 속할 확률이 0.823 높으며, 수도권 소재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비수도권에 비해 동 유형에 속할 확률이 0.077 낮았다. 자녀에 대한 희망 학력 수준이 전문대졸이거나 대졸 이상인 경우 고졸 이하에 비해 동 유형에 속할 확률이 각각 0.109, 0.115 높았다. 또한 고등학교 재학 당시 미래 직업을 결정한 경우 그렇지 않을 때보다 동 유형에 속할 확률이 0.038 낮았다.

〈표 9〉 특성화고 졸업자의 노동시장 이행 경로 유형에 대한 평균한계효과

구분		미취업형	병역 이행형	상용직 유지형	전문대학 진학형	4년제 대학 진학형	
인구 통계학적 특성	성별(ref.여성)	-0.215***	0.823***	-0.206***	-0.294***	-0.108***	
	전공 (ref.인문·예술)	경영·행정	-0.005	-0.046	0.103**	-0.046	-0.007
		생물·환경	0.026	0.111	0.427	0.331	-0.894
		정보통신	0.050	0.002	0.008	-0.091	0.031
		공학·제조·건설	-0.012	-0.037	0.110***	-0.043	-0.017
		농림·어업	0.040	0.018	0.006	-0.070	0.007
		보건·복지	0.813	0.859	-1.683	0.903	-0.892
	서비스	0.018	-0.046	0.104*	-0.046	-0.030	
고등학교 소재지(ref.비수도권)	0.012	-0.077***	0.057**	0.035	-0.026		
가정 특성	남성 보호자 학력 (ref.고졸 이하)	전문대졸	-0.017	-0.015	0.005	-0.010	0.038
		대졸 이상	0.001	-0.042	-0.001	0.001	0.040*
	여성 보호자 학력 (ref.고졸 이하)	전문대졸	0.003	0.007	-0.007	-0.011	0.007
		대졸 이상	-0.054	-0.016	0.032	0.052	-0.014
	자녀에 대한 희망 학력(ref.고졸)	전문대졸	-0.124***	0.109**	-0.066*	0.130*	-0.049
		대졸 이상	-0.136***	0.115**	-0.102**	0.085	0.038
가구 월 평균 소득	-0.000	0.000	-0.000	-0.000	0.000		
학교 생활 특성	고등학교 생활 만족도	-0.015	-0.011	0.013	0.016	-0.003	
	전공 동아리 경험(ref.없음)	0.004	0.010	0.029	-0.047*	0.005	
	기능반 경험(ref.없음)	-0.016	0.004	-0.012	0.049*	-0.026	
	취업지도 경험 (ref.없음)	취업상담	0.085**	-0.018	0.012	-0.050	-0.028
		채용기업정보제공	-0.016	-0.026	0.042	-0.027	0.026
		구직활동지도	0.019	-0.010	0.028	-0.021	-0.016
		취업박람회/채용설명회	-0.006	0.019	-0.032	0.049	-0.029
		취업캠프	-0.002	0.017	0.003	-0.014	-0.003
		졸업생멘토링	0.028	-0.015	-0.029	0.009	0.007
	취업처연계	-0.004	0.004	0.032	-0.001	-0.032	
	현장체험 경험(ref.없음)	-0.013	-0.020	0.016	0.006	0.011	
	재학 중 근로 경험(ref.없음)	0.012	0.024	0.005	-0.020	-0.021	
	자격증 개수	-0.010	-0.001	0.014***	-0.002	-0.000	
진로 특성	진로 역량	대학/전공 정보탐색	-0.027	-0.009	0.005	0.037*	-0.007
		희망직업 정보탐색	0.015	0.010	-0.015	0.004	-0.013
		정보관별	0.009	0.022	-0.010	-0.029	0.009
		직업 관련 학력/자격	-0.022	0.008	-0.015	0.008	0.021
		장기적인 진로계획	-0.013	-0.011	0.031	-0.010	0.003
		진로계획	-0.005	-0.017	-0.004	-0.006	0.032**
		진로준비	-0.039*	0.022	-0.012	0.017	0.012
		진로선택기준	0.044*	-0.019	-0.020	-0.000	-0.004
	어려움 극복	-0.033	0.001	0.061***	0.004	-0.033**	
	희망 학력 (ref.고졸)	전문대졸	-0.153***	-0.002	-0.103***	0.288***	-0.030
		대졸 이상	-0.133***	-0.023	-0.102***	0.140***	0.117***
미래 직업 결정 여부(ref.없음)	0.060**	-0.038*	-0.015	0.019	-0.027		
N		1,617					
Log Likelihood		-1876.177					
Model chi-square		1291.52***					
Pseudo R-square		0.256					

*p<.05, **p<.01, ***p<.001

상용직 유지형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동 유형에 속할 확률이 0.206 낮고, 경영·행정, 공학·제조·건설, 서비스를 전공한 경우 인문·예술에 비해 동 유형에 속할 확률이 각각 0.103, 0.110, 0.104 높게 나타났다. 수도권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도 비수도권 대비 동 확률에 속할 확률이 0.057 높았다. 자녀에 대한 희망 학력수준이 전문대졸 또는 대졸 이상일 경우 고졸 이하에 비해 동 유형에 속할 확률이 각각 0.066, 0.102 낮았다. 고등학교 생활 중 취득한 자격증 개수가 많을수록 동 유형에 속할 확률이 0.014 높았다. 또한 진로와 관련한 어려움을 극복할수록 동 유형에 속할 확률이 0.061 높은 한편, 자신의 희망 학력이 전문대졸이거나 대졸 이상인 경우 고졸 이하에 비해 동 유형에 속할 확률이 각각 0.103, 0.102 낮게 나타났다.

전문대학 진학형에서는 남성이 여성 대비 동 유형에 속할 확률이 0.294 낮았으며, 자녀에 대한 희망 학력 수준이 전문대졸인 경우 고졸 이하일 때보다 동 유형에 속할 확률이 0.130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교 생활 중 전공 동아리 경험이 있는 경우 없을 때보다 동 유형에 속할 확률이 0.047 낮았지만, 기능반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없을 때보다 동 유형에 속할 확률이 0.049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학과 전공에 대한 정보를 탐색했을수록 해당 유형에 속할 확률이 0.037 높았으며, 자신의 희망 학력수준이 전문대졸이거나 대졸 이상인 경우 고졸 이하에 비해 동 유형에 속할 확률이 각각 0.288, 0.14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 진학형에서는 남성이 여성 대비 동 유형에 속할 확률이 0.108 낮았으며, 남성 보호자의 학력 수준이 대졸 이상일 때 고졸 이하 대비 동 유형에 속할 확률이 0.040 높았다. 고등학교 재학 당시 졸업 이후 계획이 있었을수록 동 유형에 속할 확률이 0.032 높았던 반면, 진로와 관련한 어려움을 극복할수록 동 유형에 속할 확률이 0.033 낮게 나타났다. 또한 자신이 희망하는 학력수준이 대졸 이상이었을 경우 고졸 이하에 비해 동 유형에 속할 확률이 0.11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KEEPⅡ 자료를 바탕으로 직업계고 졸업자의 졸업 이후 노동시장 이행 경로를 유형화하여 노동시장 이행 과정과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이 연구는 선행연구와 달리 직업계고를 학교 유형에 따라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로 구분하여 이들의 이행 경로를 유형화 및 비교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시퀀스 분석과 최적 일치법을 활용하여 42개월간의 이행 경로를 도출하고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이행 경로 유형을 구분했으며, 유형별 차이 검정과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앞서 도출된 유형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계고 졸업자의 노동시장 이행 경로는 시퀀스 간 유사성에 따라 서로 다른 하위 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다. 마이스터고 졸업자의 노동시장 이행 경로는 일-학업 병행형, 노동시

장 이탈형, 상용직 유지형, 병역 후 취업형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되었으며, 특성화고 졸업자의 노동시장 이행 경로는 미취업형, 병역 이행형, 상용직 유지형, 전문대학 진학형, 4년제 대학 진학형 등 5개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계고 졸업자의 노동시장 이행 경로가 하나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 따라 그 양상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직업계고 졸업자의 노동시장 이행 경로가 크게 미취업과 진학, 취업으로 구분된다는 선행연구 결과(김성남·최수정, 2012; 김성남·하재영, 2018; 김진모 외, 2018)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마이스터고 졸업자와 특성화고 졸업자, 두 졸업자 집단의 노동시장 이행 경로는 유사한 동시에 뚜렷하게 구분되는 특성을 보인다. 일례로 마이스터고 졸업자와 특성화고 졸업자 모두 상용직 유지형이 노동시장 이행 경로 유형 중 하나로 구분되었다. 다만 마이스터고 졸업자의 경우 절반 정도가 상용직 유지형에 해당하는 반면 특성화고 졸업자는 16.9%만이 상용직 유지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마이스터고 졸업자의 병역 후 취업형과 특성화고 졸업자의 병역 이행형은 졸업 후 병역을 우선으로 이행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병역 후 취업형은 병역을 마친 후 취업 상태로 전환되는 경로가 많은 반면 병역 이행형은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에 재학하는 경로가 많다는 차이를 보였다. 두 집단의 차이는 특히 대학 진학 경로의 비중과 양상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마이스터고 졸업자는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형태로 선취업 후 진학하며(일-학업 병행형), 이러한 일-학업 병행형의 비중은 6.8%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특성화고 졸업자의 노동시장 이행 경로에서는 전문대학 진학형과 4년제 대학 진학형 등 취업 대신 진학을 선택하는 유형이 나타날 뿐 아니라, 전문대학 진학형이 26.6%를 차지하는 등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이러한 학교 유형에 따른 차이는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의 교육 목적과 성과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특성화고 졸업자의 안정적인 노동시장 이행 지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특성화고 졸업자의 전문대학 진학형과 4년제 대학 진학형은 대학 졸업 후 미취업 상태로 전환되는 양상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졸업 전 진로 지도를 강화하고 진로미결정에 따른 회피성 진학을 지양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마이스터고 졸업자의 노동시장 이행 경로는 가정 특성과 학교생활 특성, 진로 특성의 영향을 받는다. 가정 특성 측면에서는 여성 보호자의 학력이 대졸 이상일 경우 상용직 유지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부모의 학력 수준이 직업계고 졸업자의 노동시장 이행 유형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박미경 외, 2016)와 유사하다. 다만 남성 보호자 학력이 대졸 이상일 때는 상용직 유지형에 속할 확률은 낮은 반면 병역 후 취업형에 속할 확률은 높았는데, 이는 남성 보호자의 병역에 관한 청년기 경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다른 유형에 비해 불안정한 노동시장 이행을 보이는 노동시장 이탈형의 경우,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과 자신의 진로에 필요한 정보를 판별할 수 있는 역량 수준이 낮을수록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노동시장 이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최동선·이중범, 2013)를 지지하며, 마이스터고 졸업자의 노동시장 정착을 위해 고등학교 단계에서 충분한 진로 정보의 제공과 진로지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마이스터고 졸업자의 노동시장 이행 경로 유형은 특성화고 졸업자보다 다양한 개인 특성의 영향이 크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이라는 뚜렷한 교육 목표 하에 취업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마이스터고’라는 학교 자체의 특수성 때문으로 판단된다.

넷째,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가정 특성, 학교생활 특성, 진로 특성은 특성화고 졸업자의 졸업 후 노동시장 이행 경로에 영향을 미친다. 안정적인 노동시장 이행 양상을 보이는 상용직 유지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인구통계학적 측면에서는 선행연구 결과(김성남·하재영, 2018; 박미경 외, 2016; 최동선 외, 2010)와 유사하게 성별, 전공, 지역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고졸 일자리가 많은 전공일수록 상용직 유지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가정 특성의 경우 자녀에 대한 희망 학력이 고졸일수록 상용직 유지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는데, 고졸 취업에 대한 가정의 지지가 특성화고 졸업자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학교생활과 진로 특성 측면에서는 자격증 개수가 많을수록, 진로에 관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역량 수준이 높을수록, 희망 학력이 고졸일수록 상용직 유지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취업 준비와 더불어 고졸 취업의 현실과 경력개발 방향에 대한 안내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다른 유형에 비해 불안정한 노동시장 이행을 보이는 미취업형은 재학 중 취업목표를 설정했을수록 노동시장 정착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강순희, 2013)와 달리, 취업상담 경험이 있고 미래 직업을 결정했을수록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미취업형에 속한 특성화고 졸업자들이 다소 모호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진로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또한 진로상담 경험은 취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 결과(강순희, 2013)를 고려했을 때, 이들이 경험한 취업상담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상담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특성화고 졸업자의 안정적인 노동시장 이행을 돕기 위해서는 이들이 명확한 취업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이고 실제적인 취업지도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해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계고 졸업자가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 중사하는 일자리의 질적 특성을 고려한 이행 경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고용 여부 및 형태와 같은 노동시장 이행 상태를 기준으로 직업계고 졸업자의 노동시장 이행 경로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직업계고 졸업자의 노동시장 이행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그 객관적인 상태를 살펴보았으나, 직업계고 졸업자의 노동시장 이행의 질적 특성 변화까지 포괄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직업계고 졸업자가 경험한 일자리의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시간당 임금, 직종, 전공 일치도 등과 같은 일자리의 다양한 질적 특성을 함께 고려해 이들의 이행 경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이행 경로 유형의 특성을 이해함에 있어 직업계고 졸업자의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의 경험적 특성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직업계고 졸업자의 다양한 노동시장 진입 전 특성이 이후의 노동시장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해,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더불어 고등학교 재학 당시의 가정 특성, 학교생활 특성과 진로 특성을 중심으로 각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일부 변인만이 각 유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등학교에서 획득한 경험이 졸업 후 첫 일자리 입직 시점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노동시장 이행 과정 전반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구직 노력이나 이전 일자리의 특성 등 졸업 이후 시점의 경험을 나타낼 수 있는 변인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나 사회적 맥락이 경력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Savickas, 2013; Zimmerman & Clark, 2016)을 고려해 직업계고 졸업자의 노동시장 이행 경로에 대해 질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이 연구 결과의 실천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계고 졸업자의 노동시장 이행 경로를 바탕으로 중등단계 직업교육 정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자료의 제약으로 졸업 후 42개월에 해당하는 이행 경로만을 분석할 수 있었으나, 추후 직업계고 졸업자의 노동시장 이행 과정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직업계고 졸업자가 노동시장 진입 이후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정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질적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 확인한 학교유형에 따른 차이를 고려했을 때,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를 구분하여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직업계고 졸업자가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 선취업 후학습 제도를 기반으로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특성화고 졸업자는 졸업 후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으로의 진학을 선택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마이스터고 졸업자는 졸업 후 취업을 선택하는 비중이 높고, 취업 후 일과 학습의 병행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선취업 후학습과 같은 제도적 기반이 마이스터고 졸업자 집단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졸업 후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 일-학습 병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상 기업과 학교의 범위를 넓히거나 수혜자 대상 혜택을 부여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투입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강순희(2013). 특성화고 졸업자의 취업결정요인 및 노동시장 정착가능성에 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 13(3), 91-123.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1).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 세부 분석 자료.
- 권혁진, 유호선(2011). 청년층의 학교에서 고용으로의 이행 특성: 성·학력별 이행과정의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8(1), 1-31.
- 김성남·최수정(2012). 청년기의 교육 및 노동시장 이행 경로 유형화: 고교계열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직업교육연구*, 31(3), 277-299.
- 김성남·하재영(2018). 고졸 취업자의 노동시장 이행 경로 유형화. *진로교육연구*, 31(4), 89-111.
- 김은영(2001). 한국 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KCBD)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남재욱(2021).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이후 이행과정의 불평등 연구. *한국사회정책*, 28(1), 133-160.
- 노경란·허선주(2012). 특성화고 졸업 청년층의 취업결정요인. *직업능력개발연구*, 15(2), 25-49.
- 박미경·김진주·정기덕·조민호(2016). 중등직업교육 정책 대상자의 노동시장 이행유형 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6(2), 59-93.
- 박미희·홍백의(2014).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 유형과 그 결정요인. *사회복지정책*, 41(4), 21-49.
- 박병영·김미란·한준·김기현·류기락·이민주(2008). 교육과 사회계층이동 조사 연구 I: 1943-1955년 출생집단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윤형한·신동준(2012). 고졸 청년 취업 실태 분석. *The HRD Review*, 15(1), 36-63.
- 이지혜·정철영(2010).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의 취업장벽과 관련 변인.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2(1), 25-47.
- 조석훈(2008). 실업교육의 발전. 윤정일, 김민희, 김병주, 나민주, 남수경 편. *전환기의 한국교육정책*. 학지사.
- 최동선·이수경·김나라·정진철(2010). 전문계고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동선·이중범(2013). 특성화고 졸업 취업자의 좋은 일자리로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직업교육연구*, 32(1), 1-21.
- 최동선·임언·오석영·정혜령·김태환(2013). 고졸 초기경력자의 직장 적응 실태 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2014). *교육통계연보*.
- 황매향·이은설·유성경(2005). 청소년용 여성 진로장벽 척도의 개발 및 구인타당도 검증. *상담학연구*, 6(4), 1205-1223.
- Savickas, M. L.(2013). Career construction theory and practice. In S. D. Brown & R. W. Lent (Eds.),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2nd ed., pp. 147-186). Wiley.
- Zimmerman, L. M., & Clark, M. A.(2016). Opting-out and opting-in: a review and agenda for future research. *Career Development International*, 21(6), 603-633.

❖ Abstract ❖

Types of Transition Path in Labor Market for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Ryu Ji-eun(KRIVET), Suh Yelin(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labor market transition paths of Meister High School(MHS) and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SVHS) graduates by categorizing the labor market transition path using the cohort data of the second wave of 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To achieve this goal, the 42-month transition path was derived using Sequence Analysis and Optimal Matching method, and a Cluster Analysis was performed to derive the type of transition path. Also, Testing for Difference between the types and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eviously derived types.

As a result, first, it was found that the labor market transition paths of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are divided into different subgroups according to the similarity between sequences. MHS graduates' labor market transition paths were divided into four types: Work-Learning Parallel type, Labor Market Breakaway type, Full-time Job Maintenance type, and Employment After Military Service type. The labor market transition path of SVHS graduates was divided into five types: Unemployment type, Military Service type, Full-time Job Maintenance type, Junior College Entrance type, and Four-year College Entrance type. Second,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are divided into MHS graduates and SVHS graduates, and the labor market transition path of the two graduate groups was found to have differences in the number of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Third, it was confirmed that the type of labor market transition path of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can be significantly explained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family characteristics, school life characteristics, and career characteristics. And it was found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detailed factors by the school type.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suggestions for subsequent research, and practical suggestions were presented.

Key words: Vocational High School, Meister High School,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transition path in labor market